

결혼과 여성의 지위

매월 '애정기념식' 치르는 신혼 부부들

평생을 함께 살아도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이 오가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부부사상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돌만의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서구식의 '사랑' 같은 애정은 전통적인 한국의 부부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개념이다. "사랑으로 사나? 정불이면 다 살 아지는 거야"라는 충고를 들려주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에게 부부간의 애정은 서구식의 '사랑' 이라기 보다는 '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벤트 중심의 사랑과 일상생활 중심의 정

사랑이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배타적이라면 정은 미지근하고 내향적이며 포괄적인 애정이다. 또 사랑이 '이벤트 중심적'이라면 정은 '일상생활 중심적'이다. 사랑에서 단기적인 감정이 중요하다면 정은 장기적인 생활에서 얻어진 익숙함과 가까운 애정이다.

'정' 중심의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형식을 발달시키지 않았다. 부부간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팔 불출'에 걸리는 항목이며 감정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 러브 뷰, 허니'를 말하면서 서로간의 애정을 확인해간 서양 부부들과는 무척 다른 정서 위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아직도 우리에게 감정표현이 무척 서툰 부부간의 애정표현도 소극적인 편이 익숙하다. 그러나 최근의 신혼 부부들은 이런 무덤덤한 결혼 문화를 빠져나가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하고 기념하고 의례들을 발달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 무뎌진 한국 남자들이 편안하게 즐겨오던 무덤덤한 결혼문화도 변화해 나갈 조짐이다.

결혼기념 행사 한달에 한번씩

결혼한지 8개월에 접어든 신혼부부인 이 씨(31세)는 매월 결혼한 날짜가 돌아오면 결혼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파티를 벌인다.

신혼부부용 식탁 위에 두개의 촛불과 꽃으로 장식을 꾸미고 두 잔의 와인잔이 마련된다. 서로가 준비한 선물과 카드가 오간다. 카드에는 '사랑한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사랑고백의 글귀가 담긴다.

이 씨는 이 행사를 '○주년'이 아닌 '○주월' 기념식이라고 부른다. 이 부부의 결혼 ○주월 기념식은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준비한다. 이씨의 남편은 기념일이 다가와도 까맣게 잊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씨는 미리부터 "며칠 남았다"고 알려주는 일을 잊지 않는다.

이 씨는 결혼 해서 맞은 첫 번째 자기 생일을 위해서 남편에게 커다란 카드를 사준 다음 생일선물을 하도록 요구하는 적극파이기도 하다.

부러워하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 씨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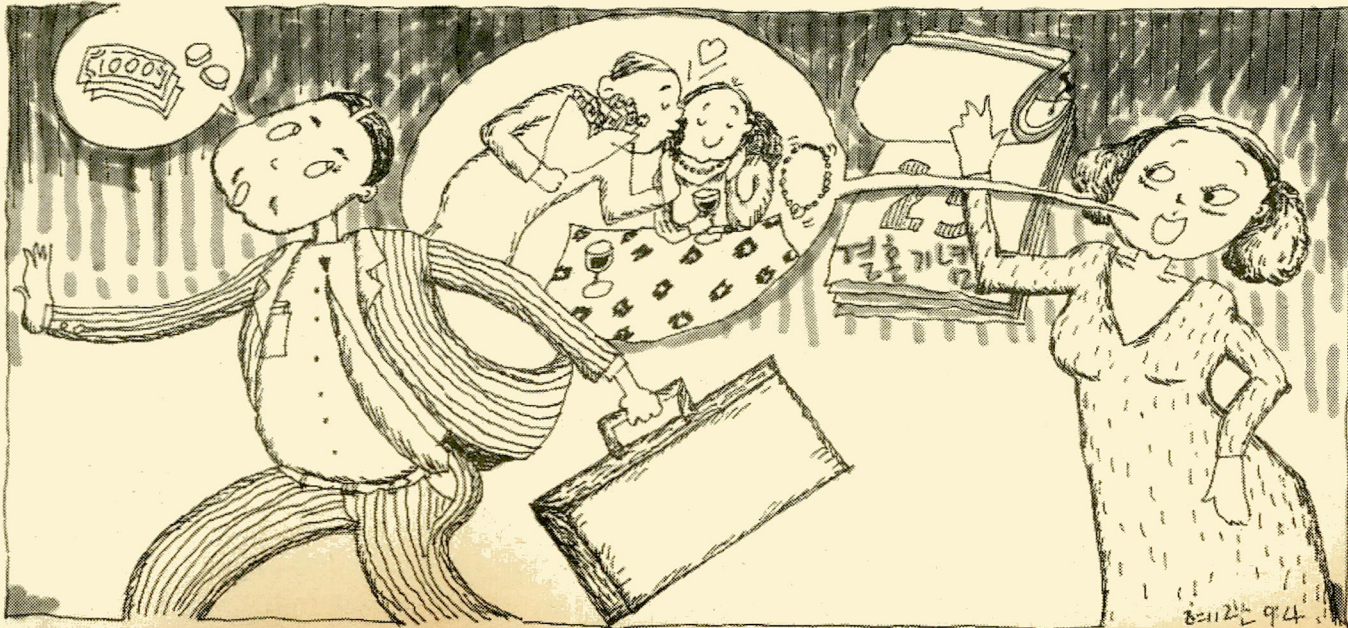
결혼 1년을 넘긴 27세의 아내 이 씨 부부는 첫 데이트 날을 중요하게 여겨 기념한다고 한다. 데이트 시절에 자주 다녔던 식당을 찾아가서 외식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아내가 선물을 받는 것이 이 부부의 기념 방법이다. 기념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지, 또는 결혼생활에서 연인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적극적인 애정표현 의례를 원하는 요즘 신부의 남편은 이 부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린다.

"결혼기념일요? 생각안해요, 그런 날이라고 뭐하고 그러는 게 어색해요, 마누라도

"가족 생일이라고 해서 챙겨주는 것도 귀찮았는데 내가 나를 기념하기 위해 나를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윤 씨는 말한다. 그에겐 요즘 신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의례들이 어딘가 덜 익고 성가신 장난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씨 또래나 그 이상의 세대들은 부부간 애정에 대해



아내 이씨가 남편에게 던지시 물어보는 것으로 기억을 되살린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언제지?" 남편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엉뚱한 날짜를 답하기도 하지만 남편에게도 첫 데이트 한 날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쑥스러운 남자들 '아내의 강요'를 강조

결혼한 날을 기념해야 하고 그에 맞는 의식을 마련해야 하고 선물이 오가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주로 아내들이다. 요즘의 아내들은 결혼하면 모든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신분하락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한테서 약속을 시켜요, 연애할 때와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애기가 생기면 불가능해질 환상일지도 모르지만요, 연애할 때는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칠 것 같은 애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결혼생활 내내 '평생 연인'으로 남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는 이런 저런 애정 의례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파트너인 남자들은 쑥스러운 표정들이다. 감정표현을 억제해온 남성다움의 교육 때문인지, 가정 지향적인 사람을 '팔 불출'이라고 비난해온 유교문화 때문인

애기 안하구요." 30세의 한 회사원은 요즘의 신혼부부들이 촛불과 외식과 선물로 구성된 의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쑥스럽게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남편이다. 다행히 이 남편의 아내는 요즘 세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념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는 아내, 전통적인 '마누라' 형의 아내다.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잘 챙기면서도 말 할 때는 '아내가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토씨를 붙이는 남자들의 버릇도 무뎌진 남성들에게 남아 있는 쑥스러움의 표현이다.

"그런 날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큰 일 날라구요, 빈손으로 들어가면 맞아죽을라구.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은 없어요, 반지나 목걸이, 옷을 주로 사줘요, 외식하구요."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돌아오면 아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챙기게 된다는 38세의 남편 남 씨. 그는 자신의 '부드러운 행동'이 상식적인 남성다움에 벗어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탓인지 "아내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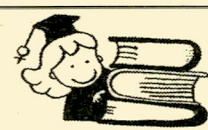
대접받으려면 쑥스러움을 극복하라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도록 무슨 기념이라고 해서 받은 선물이라고 받지 3개"라고 말하는 50대의 주부 윤씨.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분명 연애결혼으로 만난 부부들일지라도 평생 한 남자의 구애를 받는 '영원한 애인'으로 남아 있으려는 욕구도 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뎌진 남편을 다그쳐서 애정을 기념해 가는 재미를 일깨워야겠다는 동기도 있다.

이 세대에서도 남편에게서 많은 선물은 받고 사는 아내들이 있다. 이 아내들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남편을 만난 신데렐라들이어서가 아니다. 이들 세대가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아끼지 않는

(김효선 기자)



여성학 사전 4

○ 양성구유자(Androgyne)

절대적 양성구유자는 예수다. 그는 성을 남성으로 하는 남녀무차별성의 모델이다... 남성 여성성(女性性)의 구체화. (Mary Daly, 1978)

○ 에이에스디에프(ASDF)

타이프 앞에 앉은 여비서의 왼손 손가락의 위치. 영국에서는 "전체 여성노동력의 거의 3분의 1인 300만 명의 여성이 서기직과 비서직에 종사한다." (Hazel Downing, 1981·1982·1983)

○ 용모(Appearance)

"여성의 용모는 그녀의 작업복이다. 그녀가 그 고유의 작업복 없이 일하려면 고용주 또는 남편은 그녀를 괴롭히거나 대용물을 찾을 수 있다..." (A Redstockings Sister, 1969)

○ 독신남(Bachelor)

자신의 음식준비·집안청소·의복세탁을 위해 종종 여성—어머니·가정부·세탁부 등—의 도우미에 의지하는 미혼 남성. (그러므로) 그는 독신녀(Spinster)와는 대등하게 비교될 수가 없다.

■자료제공:이동욱/도서출판<청천> 대표